

관계절 구문의 최소주의적 이해: 공운용소 이동을 중심으로

양 현 권 · 이 은 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I. 서 론

본 연구는 영어 관계절의 공운용소 이동(null operator movement)을 최소주의(Minimalist Program)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주된 초점을 둔다. 이 연구는, 이 분석을 통하여, “지배”(government) 개념에 입각한 공운용소 이동에 관한 논의 체계를 최소주의의 점검이론(checking theory)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는 영어의 관계절 구문이다:

- (1) The man Genie saw is Aladdin.
- (2) The man that Genie saw is Aladdin.
- (3) The man that saw Genie is Aladdin.
- (4) *The man saw Genie is Aladdin.

Pesetsky (1982), Stowell (1985), Rizzi (1990) 및 Law (1990) 등에 따르면, (1)-(4)에 예시된 관계절 구문에는 공운용소(null operator; Op) 이동이 전제된다. 예문 (1)-(4)의 관계절의 구조는, 공운용소 이동을 가정하면, (5)와 같이 구체화된다:¹⁾

- (5) a. [_{NP} the man [_{CP} Op [_{C'} [_{TP} Genie saw t]]]]
- b. [_{NP} the man [_{CP} Op [_{C'} that [_{TP} Genie saw t]]]]]
- c. [_{NP} the man [_{CP} Op [_{C'} that [_{TP} t saw Genie]]]]]
- d. *[[_{NP} the man [_{CP} Op [_{C'} [_{TP} t saw Genie]]]]]

1)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구구조에 대한 이론으로 Chomsky(1986) 및 Chomsky(1995)를 따른다. 다만, 논의의 편의상 경동사구(light verb phrase)는 표시하지 않는다.

(5a)와 (5b)는 각각 목적어 공운용소가 이동한 경우인데, 보문소(complementizer) 'that'의 유무는 문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5c)와 (5d)는 각각 주어 공운용소가 이동한 경우로서, 'that'의 유무가 문법성에 영향을 미친다: 'that'이 있는 (5c)는 문법적인데 반하여, 'that'이 없는 (5d)는 비문법적이다.

(5)에 예시된 영어 관계절의 특질은 Pesetsky (1982), Stowell (1985), Rizzi (1990) 및 Law (1990) 등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있는데, 이들 분석은 지배결속이론(Government & Binding Theory)의 공범주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둔다.²⁾

(6) Empty Category Principle

- a. A nonpronominal empty category must be properly governed.
- b. α properly governs β iff (i) α governs β , (ii) α θ -governs β or α is chain-coindexed with β .

관계절 구문에 대한 Pesetsky (1982), Stowell (1985), Rizzi (1990) 및 Law (1990) 등의 분석은—공범주원리의 정의에 잘 드러나 있듯이—“지배”라는 개념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1990년 이후 제안된 최소주의적 접근에서는 “지배”라는 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에 대해 심각한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에 예시된 관계절 구문의 통사적 특성을 최소주의적 시각에서 재분석하고자 하는 바, 이 분석에서는 “지배”라는 이론적 기제를 전제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다음 (7)을 전제하는 바,

(7) Every movement is driven by formal feature checking.

(7)은 최소주의의 이론적 기초에 해당한다.³⁾

본 연구의 구체적 구성을 밝히면, 다음 장인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최소주의의 점검이론에 대해 개관한다. 3장에서는 관계절의 공운용소 이동이 최소주의의 자질 점검 체계로 설명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마무리인 4장에서는 3장에서의 논의를 한국어의 관계절 구문에 적용하고, 그 확장적 적용이 지니는 이론적 함의를 영한대조분석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2) 공범주원리의 구체적 특성에 대해서는 Stowell(1985)를 참고하기 바람.

3) 본 연구에서는 최소주의에 관한 기본 논의로 Chomsky(1995)를 전제한다.

II. 최소주의의 점검이론

본 장에서는 먼저 최소주의의 점검이론에 대해 개관한 다음, 최소주의의 구구조에 대한 기본적 가정을 관계절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최소주의에 따르면, 어휘항목(lexical item)은 의미자질(semantic feature), 음운자질(phonological feature) 및 형식자질(formal feature)을 지닌다. 이들 자질 가운데 문법 연산(computational operation)에는 주로 형식자질이 관여하는데, 다음 (8)에는 대표적인 형식자질의 유형이 예시되어 있다.

- (8) formal features
 - a. categorial features
 - b. φ -features
 - c. Case features
 - d. strong F, where F is categorial

최소주의에서 모든 이동(movement)은 어휘항목의 형식자질(formal feature)의 점검을 위해 유발되며 형식자질의 이동은 다음과 같은 전제가 충족된 경우에 실행된다.

- (9) F is unchecked and enters into checking relations.

즉, 이동은 미점검 형식자질에 의해 유발되며, 이동의 결과 미점검 형식자질은 점검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소주의에서 모든 이동은 기본적으로 형식자질 자체의 이동으로 이해되는데, 다음 (10)에는 형식자질의 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가 상세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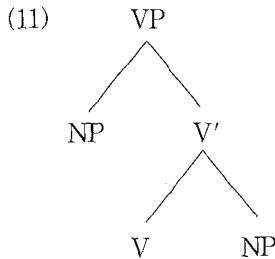
- (10) a. FF(F) moves along with F.
- b. A category α containing F moves along with F only as required for (PF-) convergence.

(10a)에 따르면, 어휘 항목의 어떤 형식자질이 점검을 위해 이동하게 되면, 그 어휘항목이 지니고 있는 다른 모든 형식자질들이 동반되어 이동하게 된다. 한편 (10b)에 따르면, 형식자질이 이동할 때 그 형식자질을 포함하는 범주가 항상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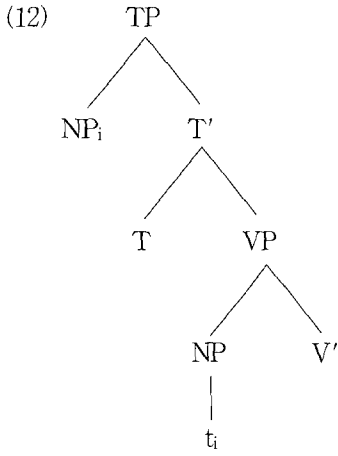
(convergence)—음성형태의 합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범주가 형식자질과 함께 이동한다.

최소주의의 점검이론에는 형식자질들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구별되는데, 그 한 가지 구별 기준은 해석가능성(interpretability)이다. 점검이론에 따르면, 자질이 이동하여 점검과정을 마치면 해석불가능한 자질([-Interpretable])은 삭제되어 소거되는데, 그 까닭은 해석불가능한 자질이 점검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그 자질을 포함하는 문장요소는 해석될 수 없어 파탄되기(crashed) 때문이다. 반면, 해석가능한 자질([+Interpretable])은 이동·점검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서 계속 연산 체계(computational system)에서 활용되는데, 이들 해석가능한 자질에는 범주 자질(categorial feature)과 명사의 일치 자질(agreement feature) 등이 포함된다. 형식자질 구별에 관한 다른 한 가지 구별 기준은 강자질(strong feature)과 약자질(weak feature)이다. 강자질에는 영어의 시제굴절소 T의 D-자질과 의문보문소 C의 Q-자질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강자질은 기본적으로 가시적 통사부에서 점검되어야 하는 특징을 지닌다. 만약 강자질이 가시적 통사부에서 점검되지 않으면 그 강자질을 포함한 어휘항목은 해석부(interpretive component)에서 해석될 수 없어 파탄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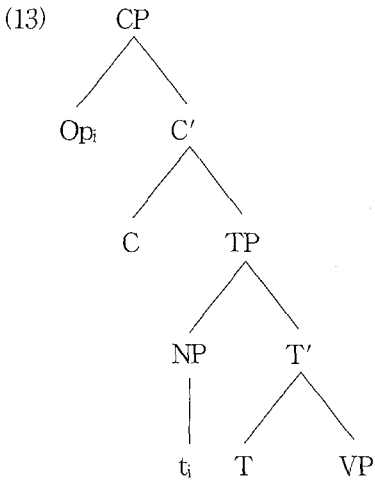
이상에서는 최소주의의 점검이론에 대해 개관하였다. 이제 논의의 초점을 최소주의의 구구조로 옮겨 보기로 한다. 다음은 최소주의에서 전제되는 동사구의 구조이다:



위 구조에서 주어 명사구와 목적어 명사구는 각각 동사와의 의미역 관계(theta relation)의 충족을 위해 병합(merge)을 통해 도입된다. 이렇게 병합된 주어와 목적어는 각각의 형태론적 자질의 점검을 위해 이동하게 되며, 이러한 자질의 점검은 T 및 C 등의 기능 범주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음 (12)에는 주어 명사구가 자질점검을 위해 TP의 지정어로 이동한 경우가 예시되어 있다.



다음 (13)은 관계절 CP의 구체적 구조의 일부를 예시한 것으로,



(13)에서는 TP의 지정어 위치에 있던 관계절 공운용소가 자질점검을 위해 CP의 지정어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CP의 지정어에는 공운용소가 위치하고, TP의 지정어 자리에는 공운용소의 흔적이 위치한다.

III. 공운용소의 일치자질 점검

본 장에서는 관계절의 공운용소 이동 현상을 점검이론의 이론적 틀을 빌어 살펴본다. 3.1에서는 주어 공운용소의 이동과 관련된 문법적 유형들을 점검이론으로 분석하고, 3.2에서는 목적어 공운용소의 이동을 자질점검 기제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1. 주어 공운용소의 이동

다음 (14)는 주어 공운용소가 이동한 관계절 구문이며, 이들 구문은 1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that'의 유무에 따라 문법성의 차이를 보인다.

- (14) a. *The man saw Genie is Aladdin.
 b. The man that saw Genie is Aladdin.

다음 (15)는 (14)의 관계절 부분을 공운용소의 이동에 초점을 두어 상세화한 것이며,

- (15) a. [_{NP} the man [_{CP} Op [_{C'} [_{TP} t saw Genie]]]]
 b. [_{NP} the man [_{CP} Op [_{C'} that [_{TP} t saw Genie]]]]

다음 (16)은 (15a)의 접합점 이전의 점검 과정을 예시한 것이다.

- (16) [_{NP} The man [_{CP} Op [_{C'} [_{TP} t [_{VP} t saw Genie]]]]]
-

(16)에서 공운용소로의 주어는 먼저 T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였다가 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주어가 TP의 지정어로 이동하는 까닭은 영어에서는 T가 지닌 범주 자질 D가 강한 자질이므로 접합점 이전에 점검 과정을 마쳐 삭제되어야 해석부에서 파탄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주어는 T의 강한 범주자질 D에 의해 유인되어 T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되는데, 이 때 주어 공운용소의 이동은 일치자질을 포함한 나머지 형식자질들의 수반이동(pied-piping)을 야기한다.

TP의 지정어 위치에 이동해 온 주어 공운용소는 접합점 이전에 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공운용소로서의 주어가 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는 까닭은 영어에서는 C가 지닌 운용소 자질(operator feature)이 강한 자질이므로 접합점 이전에 점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C의 강한 운용소 자질은 주어 공운용소를 CP의 지정어 위치로 유인하는데, 이 때 주어 운용소의 이동은 일치자질 등의 다른 형식자질들을 수반이동되게 한다.

점검이론에 따르면 문장 구성 요소들이 지닌 자질들은 점검의 과정을 통하여 허가된다. (17)의 구조는 (16)의 구조를 더욱 자세히 나타낸 것으로, (17)에는 TP의 지정어와 핵 사이에 일치 자질(agreement feature)이 점검되는 과정이 예시되어 있다.

(17) [NP the man [CP Op [C' C [TP t [T' T [VP t saw Genie]]]]]
[+AGR] [+AGR]

(17)에서 TP의 핵인 T에는 [+AGR] 자질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영어의 시제절의 핵에는 [+AGR] 자질이 있다고 전제되기 때문이다. (17)에서 TP의 지정어 위치에 위치한 흔적은 공운용소의 흔적으로, 이 흔적은 [+AGR] 자질을 지닌 것으로 가정된다. 그 까닭은 영어의 시제절의 주어는 일치자질을 지닌 것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TP의 핵과 TP의 지정어는 둘다 [+AGR] 자질을 지니고 있고, 이들 일치자질은 지정어-핵 관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점검된다. 한편, 점검을 마친 TP의 지정어의 일치 자질은 해석 가능한 자질이므로 점검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서 연산 체계에서 활용된다.

(17)에서 C는 관계절의 핵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계절 핵의 자질에 관한 제안으로 Rizzi (1990)의 분석을 채택하고자 한다. 다음 (18)은 C에 일치자질을 설정한 Rizzi의 제안을 [+AGR] 자질로 구체화한 것이다.

(18) C $\left\{ \begin{array}{l} \text{[+AGR]: that으로 실현되는 보문소} \\ \text{[-AGR]: 음성형태로 실현되지 않는 보문소} \end{array} \right.$

Rizzi에 따르면, 관계절의 핵에 나타난 'that'은 [+AGR] 자질을 지니며,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핵은 [-AGR] 자질을 지닌다. 이러한 가정 하에 예문 (14a)가 비문법적인 이유를 (19)의 구조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19) [NP the man [CP Op [C' C [TP t [T' T [VP t saw Genie]]]]]
[+AGR] [-AGR] [+AGR] [+AGR]

(19)의 CP의 지정어 자리에는 공운용소가 위치하는데, 이 공운용소는 [+AGR] 자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까닭은 (19)의 CP의 지정어에 위치한 공운용소는 TP의 지정어가 옮겨 온 것으로, TP의 지정어에 있던 공운용소의 [+AGR] 자질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석가능한 자질로서 점검된 다음에도 삭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18)에 의하면, (20)에서 CP의 핵인 C는 [-AGR] 자질을 지니는데, 이 [-AGR] 자

질은 CP의 지정어가 지닌 [+AGR] 자질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20)에서 CP의 지정어와 핵 사이의 자질점검이 조화롭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러한 부조화가 예문 (19)의 비문법성의 원인인 것이다.

다음 (20)은 문법적 예문 (14b)의 구체적 점검 과정을 예시한 것이다.

(20) [NP the man [CP Op [C' that [TP t [T' T [VP t saw Genie]]]]]
 [+AGR] [+AGR] [+AGR] [+AGR]

(20)에서 TP 단계의 일치자질의 점검은 (17)에서와 다르지 않다: TP의 핵과 지정어는 각각 [+AGR] 자질을 지녀 일치자질의 점검이 조화롭다. 한편, (20)의 CP 단계에서의 일치자질의 점검은 (19)에서와는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19)에서는 C의 일치자질이 [-AGR]인 반면 (20)에서는 C의 일치자질이 [+AGR]이라는 점이다: (18)에 의하면 관계절의 핵에 'that'으로 실현된 보문소 C는 [+AGR] 자질을 지닌다. (19)와 (2)의 C의 일치자질의 차이는 (14a)와 (14b)의 문법성·비문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19)에서는 CP의 핵과 지정어 사이에 [+AGR] 자질이 일치하지 않지만, (20)에서는 CP의 핵과 지정어의 [+AGR] 자질이 일치한다. (20)에서의 [AGR] 자질의 이러한 일치는 (14b)의 문법성과 조화로운 것이다.

정리하면, 주어 공운용소가 이동한 영어이 관계절은 그 관계절의 핵인 C에 'that'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문법적인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1) 가. 'that'으로 실현되지 않은 C는 [-AGR]을 지닌다.

나. CP의 지정어의 공운용소는 주어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AGR] 자질을 지닌다.

다. CP의 지정어와 핵은 [AGR] 자질이 불일치하여 비문법적 문장으로 예측된다.

한편, 관계절의 핵인 C에 보문소 'that'이 나타나면 주어 공운용소가 이동한 영어의 관계절은 문법적인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22) 가. 'that'으로 실현된 C는 [+AGR]을 지닌다.

나. CP의 지정어의 공운용소는 주어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AGR] 자질을 지닌다.

다. CP의 지정어와 핵 사이에는 [AGR] 자질의 점검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

2. 목적어 공운용소의 이동

주어 공운용소의 이동과 달리 목적어 공운용소의 이동은 'that'의 유무에 관계없이 허가

된다.

(23) The man Genie saw is Aladdin.

(24) The man that Genie saw is Aladdin.

(25)에는 (23)의 접합점 이전의 점검 과정이 예시되어 있다.⁴⁾

(25) [NP the man [CP Op [C' [TP Genie saw t]]]]

(25)에서 공운용소는 C의 강한 운용소 자질을 점검해 주어야 하므로 C에 의해 유인되어 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이 때 공운용소가 지닌 나머지 형식적 자질들도 자동적으로 수반이동한다. (26)은 (25)의 점검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한 것이다.

(26) [NP the man [CP Op [C' [TP Genie saw t]]]
[-AGR] [-AGR]

(26)에서는 CP의 핵인 C가 [-AGR] 자질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that'으로 실현되지 않은 C의 자질을 [-AGR]로 분석하는 Rizzi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26)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한 공운용소는 목적어 위치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이 목적어 공운용소는 [-AGR]을 자질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일치자질의 점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26)에서는 CP의 핵과 지정어 사이의 자질 점검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편, 예문 (23)에 대한 (26)과 같은 분석에는 한 가지 특이한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것은 목적어 공운용소에 [-AGR]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은 3.1의 논의에서 주어 공운용소에 [+AGR] 자질을 부여하였던 가정과 대조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어 문장에 있어서 목적어와 주어 사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전제되는데, 그것은 주어와는 달리, 목적어의 일치 자질은 그 값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영어에서 목적어는, 주어와는 달리, 지정어-핵 일치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일치 자질을 지닐 수도 있고 지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6)에는 목적어 공운용소에 일치 자질이 없는 경우—목적어 공운용소의 AGR자질이 [-]인 경우—가 논의되어 있다.

다음 (28)은 (27(=24))의 점검 과정을 나타낸 구조이다.

(27) The man that Genie saw is Aladdin.

4) 논의의 편의상, 목적어 (공운용소)가 이동된 예에서는 주어 (공운용소)의 이동 효과는 나타내지 않는다.

(28) [_{NP} the man [_{CP} Op [_{C'} that [_{TP} Genie saw t]]]]
 [+AGR] [+AGR]

(28)에서는 CP의 핵인 C가 [+AGR] 자질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이는, Rizzi의 제안에 따르면, 'that'으로 실현된 C는 [+AGR] 자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28)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한 공운용소는 목적어 위치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이 목적어 공운용소는 [+AGR]을 자질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일치자질의 점검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28)은, (26)에서와 마찬가지로, CP의 핵과 지정어 사이에 점검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있다.

한편, (28)에 대한 이상의 논의에는 (26)에 대한 논의에서와는 한 가지 다른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것은, (26)에서는 목적어 공운용소에 [-AGR] 자질이 부여되었던 반면, (28)에서는 목적어 공운용소에 [+AGR]을 부여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목적어 공운용소의 일치자질에 관한 이러한 가정은 특수한 것이 아니다. 그 까닭은 영어에서 목적어는, 주어와는 달리, 지정어-핵 일치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일치 자질을 지닐 수도 있고 지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26)은 목적어 공운용소가 [-AGR] 자질을 지니는 경우이고, (28)은 목적어 공운용소가 [+AGR]을 지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목적어 공운용소의 이동에 있어 관계절의 핵에 'that'의 유무는, 주어 공운용소와 달리, 문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 까닭은 목적어 공운용소는, 주어 공운용소와는 달리, 일치 자질에 있어 [+AGR]일 수도 [-AGR]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어 관계절의 공운용소 이동을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분석의 주된 초점은 다음 예문들의 문법적 유형을 “지배”라는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설명하는데 두었다.

(29) The man Genie saw is Aladdin.

(30) *The man saw Genie is Aladdin.

구체적으로는, 위 예문들의 문법성의 차이를 일치자질의 성공적 점검 여부와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29)는 (31)에서 보이듯이 CP의 지정어와 핵 사이에 일치자질의 점검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 반하여, (30)은 (32)에서 보이듯이 CP의 지정어와 핵 사이에 일치자질의

점검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31) [_{NP} the man [_{CP} Op [_{C'} [_{TP} Genie saw t]]]]
[-AGR] [-AGR]

(32) [_{NP} the man [_{CP} Op [_{C'} [_{TP} t saw Genie]]]]
[+AGR] [-AGR]

한편, (29)와 (30)의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활용된 일치자질은 한국어와 영어의 통사적 차이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이다.⁵⁾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영어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29) 및 (30)에 예시된 문법성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3) 지니가 본 사람은 알라딘이다.

(34) 지니를 본 사람은 알라딘이다.

(33)과 (34)에 사용된 관계절의 구체적 구조는 (35) 및 (3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5) [_{CP} Op_i [_{C'} [_{TP} 지니가 t_i 보] ̀]] 사람

(36) [_{CP} Op_i [_{C'} [_{TP} t_i 지니를 보] ̀]] 사람

(35)와 (36)에는 공운용소 이동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관계절 구문에 공운용소 이동을 제안한 Yang(1994)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35)에서는 목적어 공운용소가 이동하였고, (36)에서는 주어 공운용소가 이동하였다. (35)의 구조는 앞에서 분석한 영어의 관계절 구조 (31)과 다르지 않고, (36)의 구조는 영어의 관계절 구조 (32)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앞선 (32)에 관한 논의에서 (32)가 비문법적인 까닭은 CP의 지정어에 위치한 공운용소의 일치자질—[+AGR]—과 CP의 핵에 위치한 공보문소의 일치자질—[-AGR]—이 서로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32)가 비문법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32)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예문 (36)이 문법적인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본 논문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일치자질의 유무라는 매개변인에서 찾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는 일치자질이 없다. 따라서 (36)의 CP의 지정어와 핵에는 일치자질이 설정되지 않고, 그에 따라 (36)에서는 (20)에서와는 달리 일치자질의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 한국어에는 일치자질에 관한 체계적 언급에 대해서는 Yoon(1990)을 참고하기 바람.

참 고 문 헌

- 양현권 (1995) "의문사 이동과 의문자질," *생성문법연구*, 5, 3-25.
- 이은주 (1999) "영어 관계절의 공운용소 이동에 관한 최소이론적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혜령 (1999) "UG Availability to Korean EFL Learners, 미발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준비 논문.
- Aoun, J. & Clark, R. (1985) "On Non-overt Operators," *Southern California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0.
- Borer, H. (1984) "Restrictive Relatives in Modern Hebrew,"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6.
- Browning, M. (1987) *Null Operator Constructions*, Ph.D. Dissertation, MIT.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
- Chomsky, N. (1986) *Barrier*, MIT Press.
- Chomsky, N. (1988)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ed. R. Freidin. MIT Press.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the View from Building 20*, ed. K. Hale & S. J. Keyser, MIT Press.
- Chomsky, N.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5. MIT.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MIT Press.
- Chomsky, N. & Lasnik, H. (1977) "Filters and Control," *Linguistics Inquiry* 8.
- Lasnik, H. & Saito, M. (1984) "On the Nature of Proper Government," *Linguistic Inquiry* 15.
- Law, P. (1991) "Effects of head movement on theories of subjacency and proper government," MIT Press.
- Pesetsky, D. (1982) "Complementizer-Trace Phenomena and Nominative Island Condition," *Linguistic Review* 1.
- Rizzi, L. (1990) *Relativized Minimality*, MIT Press.
- Safir, K. (1986) "Relative Clauses in a theory of Binding and Levels," *Linguistic Inquiry* 17.
- Stowell, T. (1985) "Null Operators and the Theory of Proper Government," ms., UCLA.

- Yang, H.-K. (1994) "Configurational Properties of CP and Relativization in Korean,"
Explorations in Generative Grammar, Hankook Press.
- Yoon, J.-Y. (1990)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bar Theory,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Abstract>

A Minimalist Understanding of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With Special Attention to Null Operator Movement

Yang, Hyun-Kwon · Lee, Eun-Ju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Minimalist analysis of English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The paper pays special attention to null operator movement in the relative clauses. It proposes that (un)grammaticality of the null-operator-moved relative clauses is traceable back to (mis)matching of AGR-features at the level of CPs.